

중기중앙회, 1200인분 명절음식키트 전달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회장 김성진)는 13일 광주일백원에서 '2025 설맞이 지역 소외계층 명절음식 나누기' 전달식을 진행했다. (사진) 전달식에는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회장,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후원금을 통해 마련했으며 소고기, 떡국떡, 만두 등 1200인분은 복지시설 8개소에 직접 배송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다사랑어린이집, 굿네이버스에 라면 트리 전달



광주 북구 다사랑어린이집(원장 임가영)이 최근 굿네이버스 호남권역본부(정용진 본부장)에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라면 트리 1018개를 전달했다. (사진) 아이들이 직접 제작한 라면 트리는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진행됐으며 다사랑어린이집 소속교사 및 아동, 학부모들이 주운 겨울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을 전달하기 위해 이뤄졌다. 라면 트리는 광주전남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 및 가정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다사랑어린이집은 그동안 아이들과 함께 주위를 돌아보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후원물품을 전달해왔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김용철 호남대 교수 소방청장 표창 수상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김용철(사진) 교수가 '2024년 소방안전교육업무' 추진과 관련해 소방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소방교육 활성화를 통한 안전의식 고취 및 소방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교수는 소방행정학과 대학생전문용소방대와 함께 2020년 무등산 산불 안전 캠페인을 통한 산불안전 계몽·교육활동과 2022년 광주FC 홈경기 관람객 대상 소방안전교육, 광주·전남현역원 정기 현행 활동을 펼쳤다. 또 광주소방안전본부와 광산소방서가 주관하는 초·중학생 대상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해 화재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시민들의 초동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했다. 김 교수는 "지역 소방안전문화 확산·정착은 개인의 노력이나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며 다양한 소방안전 교육·훈련 아이티 발굴 및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특수교육 학생 대상 프로그램 진행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은)은 13일 겨울방학을 맞아 특수교육대상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다채로운 방학생활' 운영을 시작했다. (사진)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생 20명과

명절음식 지원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를 채워주는 사회공헌사업이다. 이날 전달된 떡만둣국 키트는 지역 중소기업 대표 및 협동조합 이사장,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후원금을 통해 마련됐으며 소고기, 떡국떡, 만두 등 1200인분은 복지시설 8개소에 직접 배송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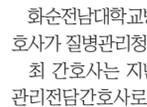
희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의 전인적 발달과 여가활동, 보호자 양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제과제빵, 창작미술, 뉴스포츠, 우쿨렐레 제작 및 연주와 커피클래스, 라탄공예, 그림책 놀이 테라피 등으로 운영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

한국의식업중앙회 전남지회, 이웃사랑성금 전달



(사)한국의식업 중앙회 전라남도지회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동일) 희망 2025년캠페인에 이웃사랑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사진) 행사에는 오세현 전남사랑의열매 모금팀장, 송기현 (사)한국의식업중앙회 전라남도지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2003년부터 전남 사랑의열매의 희망나눔캠페인에 동참해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사)한국의식업중앙회는 이번에도 100만 원을 기부해 전남도 내 돌봄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최윤경 화순전남대병원 간호사 질병관리청장 표창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최윤경(사진) 간호사가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최 간호사는 지난 2020년부터 감염관리전담간호사로 근무하며 신종감염병 환자 관리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효율적인 의료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화순전남대병원의 다제내성균 유행 발생 관련 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구연 발표를 통해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호남지회에서는 포스터 발표로 감염관리 활동 사례를 타 의료 기관과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예방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 간호사는 2022년 코로나19 대응 등 지역주민 건강과 안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화순군수 표창을 받았으며, 2024년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제29회 동계학술대회 연수 교육에서 우수한 연구 결과 내용으로 구연 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TV프로그램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방송사	프로그램	방송시간
KBS1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레블출력(재)
KBS2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
MBC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KBC/SBS	00 모닝와이드 1~2부	20 KBC 모닝와이드
06	50 인간극장	30 생생정보 스페셜
07	25 아침마당	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8	30KBS 뉴스 930	30 신데렐라 게임(재)
09	00 세계는 지금 스페셜	10 KBS 아침 뉴스타임
10	10 비상계엄 내란 혐의 국정조사	30 인간극장 스페셜
11	00 KBS 뉴스 12	25 생생정보 스페셜(재)
12	00 KBS 네트워크 특선 우리 동네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재)
01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02	00 KBS 뉴스 10	15 월드컵 24
03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45 내 비밀친구 햄피(재)
04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재)
05	00 KBS 뉴스 5	30 어린이 동물티비(재)
06	30 전국을 달린다	00 라이즈맨
07	40 남도 지도그래피(재)	15 바바 프렌즈
08	00 6시 내고향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09	00 뉴스7 광주전남	00 경제콘서트
10	40 생방송 투론740	35 2TV 생생정보
11	30 결혼하자 맹꽁이	05 더 프레지던트 스페셜
12	00 KBS 뉴스 9	05 더 프레지던트 스페셜
01	50 시사기획 창	05 친절한 전주씨
02	50 KBS 뉴스라인W	40 MBC 뉴스데스크
03	30 영상앨범 신재	30 셉템브사의 비밀
04	15 더 탄탄대 스페셜	00 선을 넘는 클래스
05	55 KBS 재난방송센터	00 신발 벗고 돌싱포맨
06	45 전지적 참견 시점 스페셜	20 틈만 나면
07	10 도시락 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8:1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8:30 교육대기획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클래스 업! 교실을 깨워라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귀하신 물	19:20 고향민곡
07:00 애코와 친구들 수리수리 넘버랜드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50 극한직업
07:15 모두 함께 부스누!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4:30 특별기획 - 한국의 전통문화를 말하다	<안녕! 튀니지> 관용의 땅 제르바
07:45 메탈카드봇 S 강철의 귀환	15:15 나의 두 번째 교과서	21:35 한국기행
08:00 똥똥똥 유치원	15:55 블록S	<뜨거운 것이 좋아 2부> 뉴룩 VS 불꽃
08:20 한글용사 아이야	16:10 똥똥똥 유치원(재)	21:55 건축탐구 - 집
08:35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16:30 페파 피그	22:50 EBS 다큐프라임
08:50 사샤 앤 마일로	16:40 마사와 곰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20 자이언트 팽TV	16:55 뽀롱뽀롱 뽀로로(재)	24:0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09:40 박준빈의 세계 기사식당 3	17:10 한글용사 아이야(재)	24:40 EBS 비즈니스 리뷰
10:30 한국기행	17:40 메탈카드봇 S 강철의 귀환	24:55 지식채널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4일(음 12월 15일 癸未)

<p>36년생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행운이 따를 수 있니다. 48년생 석연치 않다면 과감하게 배제해도 된다. 60년생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 72년생 흑백을 분명히 가리지 않으면 난처해진다. 84년생 형제를 좌우할 만한 열쇠를 거머쥐게 되리라. 96년생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하겠다. 행운의 숫자 : 30, 61</p>	<p>42년생 내버려 두면 위험하니 즉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니라. 54년생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66년생 무리하지 않는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 78년생 가변적인 상황이나 탄력적으로 대처하자. 90년생 남의 일에 나서지는 것은 부절없는 것이다. 02년생 돈 때문에 많은 이들이 관련된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37, 99</p>
<p>37년생 만전을 기한 후에 임하는 것이 낫겠다. 49년생 평균적인 것이 가장 이상적임을 알라. 61년생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으니 어림잡아도 지장이 없다. 73년생 중요한 일이 논의될 것이니 놓치지 말자. 85년생 아는 길도 물어 가는 지혜가 있어야 손실이 없으리라. 97년생 착실하게 정진하면 기필코 성취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6, 93</p>	<p>43년생 서두를수록 시원스러운 진척을 보이겠다. 55년생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못하는 안락한 입장에 놓여 있다. 67년생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일이다. 79년생 특별한 일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91년생 지금은 기다림이 포부를 펼쳐야 할 시기이니라. 03년생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행운의 숫자 : 29, 51</p>
<p>38년생 외형상으로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풍부해진 셈이다. 50년생 요행수는 꿈꾸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62년생 강도와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형세이다. 74년생 절차대로 이행해야만 차질이 없으리라. 86년생 등기만 해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98년생 산뜻한 새 모습으로 과감하게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16, 78</p>	<p>44년생 겸손한다면 난관을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56년생 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68년생 만만하게 왔던 유익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80년생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상응하는 이치에 놀랄 것이다. 92년생 지리멸렬했던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한다. 04년생 수월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7, 63</p>
<p>39년생 추구한다면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51년생 전면적으로 거사를 도모할 수 있는 날이다. 63년생 중차대한 일이므로 세밀히 따져봐야 한다. 75년생 여과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갈 수 있다. 87년생 한번 시작되면 술술 풀려 나올 것이니라. 99년생 숙단은 금물이니 차분하게 생각할 일이다. 행운의 숫자 : 28, 71</p>	<p>45년생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전체적인 국면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57년생 예견한 대로 대처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겠다. 69년생 부수적인 것은 차치하고 핵심적 대상에 집중하라. 81년생 현재의 공허함을 수용하면서 대응하다 보면 실리를 추구할 수 있다. 93년생 등잔 밑이 어둡다. 05년생 손실이 발생할 수다. 행운의 숫자 : 23, 72</p>
<p>40년생 식견이 풍부한 이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옳다. 52년생 지극히 조그마한 차이므로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64년생 취약점이 보이거든 망설이거나 합리화시키려 하지 말고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 76년생 부수적인 것보다 주된 핵심을 다루어야 할 때가 되었다. 88년생 초기 상황을 무시하지 말라. 00년생 주저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43, 62</p>	<p>46년생 뜻밖으로 이중 또는 삼중의 행운이 따르리라. 58년생 더불어 어울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니 노파심을 버려도 된다. 70년생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수용하고 보자. 82년생 경협자의 지혜를 빌린다면 진척이 빠르다. 94년생 객관적으로 들여다 보아야 할 때다. 06년생 회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42, 52</p>
<p>41년생 잘 준비되어 있는지 일일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53년생 기대했던 것은 이미 물거품이 된 지 오래되었다. 65년생 한계를 벗어나려면 중차대한 단초들이 발생할 수 있다. 77년생 판도를 좌우할만한 결정적인 방도가 절실하다. 89년생 크게 상관될 바는 아니니 패념치 말라. 01년생 최선을 다한다면 극복되리라. 행운의 숫자 : 09, 70</p>	<p>47년생 절차대로만 진행한다면 순조롭다. 59년생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판세이니라. 71년생 직접 만나야 해결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83년생 부담스럽다면 체면 불구하고 피하는 것이 낫겠다. 95년생 결정되었다면 신속하게 실행해야 하느니라. 07년생 관계를 떠나서 냉정히 돌이켜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19, 50</p>